

**성과금 0.0001%**  
“투자유치 제대로 되겠느냐?”  
**10000**



## 전남도, 공무원·일반인 인센티브 제공 인색

1135억 유치 17명에

지난해 858만원 지급

기업 및 자본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 될 만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투자 유치를 성사시킨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전남도의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과금이 투자금액의 1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복잡한 증빙서류 준비에 협약부터 실무자까지 전 과정을 총괄해야 하는 등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기업, 1135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공무원 및 민간인 14명과 3명에게 각각 791만 7000원과 66만5000원 등 모두 858만 2000원을 지급했다. 1만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에 명시한 기준이 엄격하고 제한도 많기 때문이다.

조례는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기업유치 20억원 이상, 자본유치 1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10억~100억원까지 공무원은 1만분의 5, 민간인은 1만분의 8, 100억~1000억원은 1만분의 4, 1만분의 7, 1000억~1조원 1만분의 3, 1만분의 6으로 지급비율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유치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자본유치는 지역경제파급효과에 의해 지급율을 재조정하면서 실제 성과금은 1만분의 1도 안 되게 해왔다. 예를 들어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연간 3000억원 이

상이어야만 산출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해 제공하고, 투자자를 방문·실측해 전남도에 투자를 창출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 성과금을 받으려면 무려 31개 항목이나 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등 투자유치 실현증빙서류까지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투자를 유치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2년간 노력한 끝에 176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지난해 200만원을 받은 한 직원은 “성과금이 적은 것은 물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탈락한 경우도 있다”며 “투자유치가 매우 어려운 만큼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7명이 서류 미제출, 공헌도 미약 등으로 성과금을 받지 못했다.

불경기에 산업단지 과다 공급까지 겹치면서 전남지역 각 시·군은 물론 전국 지자체 간 투자유치 경쟁은 날로 격심해지고 있다. 공장 이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한 업체에 전남지역 5개 시·군 담당자가 며칠 간격으로 찾아가고, 담당 직원들은 전략업체를 선정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등 지자체들이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노력에 비해 성과금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에는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2월 1일(월)~9일(화)  
문의: 062)605-1115

한빛원전 치어방류 속내? ▶6면

광주 윤두서전 인기몰이 ▶18면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 ‘국가지질공원’ 무등산

환경부, 천왕봉 등 45곳 자연·문화 환경 최종 인증...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탄력’

무등산 일대 자연과 역사·문화 환경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환경부에 공동으로 신청한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이 27일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인증됐다.

이번 지질공원 인증으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과 자연유산 등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구과학적 중요성과 희귀한 자연 특성, 우수한 경관, 고고학·생태·문화·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무등산권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에 이어 국내 6번째로 인증됐다.

이번에 인증된 무등산권 지질공원 면적은 246.31㎢(광주 동구 48.41·북구 85.30·



무등산 입석대

화순 95.18·담양 17.42㎢)로 ‘지질명소’는 무등산 천·지·인왕봉 등 23곳이, 역사·문화환경의 가치를 인정된 ‘비(非)지질명소’는 호수생태원·환벽당·가사문화유적권 등 22곳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는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7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를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로 개편하고 지질공원팀을 구성해 지

질·지형유산 보고서, 운영·관리계획서, 마케팅전략, 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을 착실히 준비해왔다.

또 같은 해 11월 화순·담양군과 업무협약을 하고 무등산권 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질공원사무국의 서면심사, 전문위원 현장심사, 지질공원위원회 현장방문(20~21일)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받았다.

심의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면적·절리면 크기가 세계 최대급인데다 해발고도가 750m 이상 내륙 산상에 위치한 독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과 더불어 이번 지질공원 인증으로, 무등산권 브랜드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관광수요도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김동수 공원녹지과장은 “시·도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무등산권 지자체와 주민과도 협력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등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메주 잘생겼지라” ... 아낙들 웃음꽃



27일 오후 함평군 나산면 입석마을에서 부녀회원들이 전통방식으로 발효시킨 메주를 새끼줄로 묶고 있다. 군불을 땀 온돌방 짚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사각형의 메주는 40여 일간 발효과정을 거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농악, 인류무형유산에 유네스코 등재

한국의 농악이 27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이날(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농악(Nongak, community band music, dance and rituals in the Republic of Korea)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농악은 앞서 지난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로부터 만장일치로 ‘등재권고’ 의견을 얻어 등재가 확실시됐다.

이로써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강릉 단오제(2005년),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이상 2009년),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년),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이상 2011년), 아리랑(2012년), 김장문화(2013년)에 이어 농악까지 17건의 인류무형유산 보유국이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도 ‘아리랑’을 첫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했다.

／연합뉴스

www.gjst.ac.kr

#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한번 비상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광주과학기술원 특강**  
2014. 12. 5 (금) 16:20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노벨상 수상자가 본 기업가와 기업을 정의  
Entrepreneur and Entrepreneurship in a view of the Nobel Prize-winner, Dan Shechtman

-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
-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 노벨화학상 수상(2011)

※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기업가정신교육센터는  
리스트 파워 프로그램을 2015년 3월 부터 운영합니다.

- 교육내용: 기업가 그리고 정신, Business Producing 및 아이비 혁신, 기술 사업화, 사업전략 및 글로벌 전략,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사업관리, 마케팅 및 협상
- 사업내용: 창업희망자 교육 및 기업가 양성, 시장분석 및 타당성 검토, 사업자문 및 컨설팅, 경쟁전략 및 글로벌전략,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교육
- 대상: 교수·전문가 창업, 은퇴자 창업, 연구원 및 기술 창업, 중·고등학교/대학(원)생/일반인 및 주부창업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번지 / Tel: 062-715-2792 / E-mail: maska3296@gjst.ac.kr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